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부처 이전의 부처 누구인가

학승이 물었다.  
“깨달음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는 진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미 피었어.”  
학승이 말했다.  
“진입니까? 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진이 바로 실이고 실이 바로 진이다.”

問 覺花未發時 如何辨得眞實 師云 已發也 云未審是眞是實 師云 眞即實實即眞

깨달음의 꽃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말한다. 석가모니가 깨닫지 못했다면 수많은 진리 중에 무엇인 진실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이에 대해서 조주 선사는 그 꽃은 석가모니 이전에 피었다고 말한다. 부처 이전에도 부처는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 이전의 부처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겠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학승이 물었다.  
“4은(은) 3유(유)에 보답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배은망덕한 놈이다.”

問 還有不報四恩三有者也無 師云有 云如何是 師云 者 辜恩負德漢

불법승 삼보의 은혜,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가 4은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자이다. 불법승 삼보를 거역하는 죄, 국왕을 거역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3유이다. 이 5역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으로 지속 되는 과보를 받는다. 깨달은 자도 윤리는 거역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무엇을 그에게 베풀어주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問 貧子來 將什麼物與他 師云 不欠少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아직 원함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사람은 아직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로 가난해져 보라. 그때 대만족을 깨달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주의 바른 주인은 누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종심(從?)이다.”

問 如何是趙州正主 師云 老僧是從諗  
나의 주인은 나다. 그 누구도 아니다.

노파가 물었다.  
“나는 다섯 가지 장애를 가진 여자의 몸입니다.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원컨대 모든 사람은 천상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노파는 영원히 고히에 가라앉으소서.”

有婆子問 婆是五障之身 如何免得 師云 願一切人生天 願婆婆永沈苦海

여자는 범천, 제석, 마왕, 윤천왕, 부처 등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을 여인의 오장(五障)이라 해 여인은 성불하지 못한다는 말의 근원이 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에는 용녀가 즉석에서 성불함을 보임으로써 여인도 성불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후로 원칙적으로 남녀부귀빈천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노파는 스스로 오장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면하는 길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조주 선사는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뫄난 여인이여,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내가 그대를 오장에서 면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를 영원히 고히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나는 차라리 그대를 고히로 인도하는 축원을 한번 해주는 것이 더 낫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38)

# 잠재된 98번뇌에 인식 등 10전 포함

## 번뇌-② 108번뇌

지난 회에서는 번뇌의 사전적 의미와 개념을 설명하면서 108번 번뇌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했다. 하지만 불교에서 번뇌를 논할 때 '108번뇌'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108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번뇌의 종류를 하나씩 나열해 총 108개를 합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복잡한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108이라는 숫자의 근원이 정확히 어디에서 설명되는지 현재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과 불교 교단이 분열되면서 형성된 각 부파(部派)마다 108번뇌의 체계를 나름대로 세움으로서 다양한 108번뇌의 종류가 생겼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또한 명확하게 불교 어느 부파에 의해 형성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번뇌에 대한 다양한 법문을 제자들에게 설했고, 이를 듣고 기억한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 후 각자 자신들이 들은 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면상 가장 대표적인 번뇌론을 소개하기로 하자.

부파불교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다. 대승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번뇌의 구

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일체유부는 번뇌와 같은 의미로 수면(隨眠: anusaya)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수면은 넓은 의미로 '기질', '경향', '성향' 등을 나타내는데, 특히 마음에 잠재돼 있는 편향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항상 '나쁜 경향', '나쁜 자질' 등의 의미가 따르며, 삼독(三毒)이라 불리는 탐·진·치도 당연히 수면에 포함된다. 설일체유부는 108번뇌를 크게 98수면과 10전(纏)으로 나누고 있다. 98수면은 98가지 번뇌를 뜻한다. 98수면은 먼저 여섯 가지 근본번뇌로부터 시작한다. 여섯 근본번뇌는 탐·진·치·의(疑: 의심하는 마음)·만(慢: 다른 것과 비교하여 뽐내거나 비하하는 마음)·견(見: 욕망을 바탕으로 사물을 보는 견해)을 말한다. 여기서 견은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유신견(有身見: 자신의 몸과 남의 몸,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견해)·변집견(邊執見: 고집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보는 견해)·사견(邪見: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견취견(見取見: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견해)·계금취견(戒禁取見: 자신의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으로 나뉜다. 위의 항목을 모두 합쳐 십수면 혹은 십번뇌라고 말한다.

상술한 십수면은 수행에 의해 벗어날 수 있다. 그 수행의 방법은 크게 견도(見道)와 수도(修道)로 나뉜다. 지혜에 의

한 삼계[욕계·색계·무색계]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수행 단계를 견도라고 하는데, 이 견도의 과정에서 멸시킬 수 있는 번뇌를 견혹(見惑)이라고 한다. 또 견도의 경지 이르면 그 다음단계가 수도인데, 수도의 단계에서 멸시킬 수 있는 번뇌를 수혹(修惑)이라고 한다.

이 견혹과 수혹은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견혹은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에 각각 고·집·멸·도의 사제(四諦)를 도입한다. 즉 삼계에 사제를 곱해 12개의 항목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십수면을 대입시켜 88개의 번뇌를 도출시키는데, 지면상 88개 모두를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수혹은 욕계에 탐·진·치·만, 색계에 탐·치·만, 무색계에 탐·치·만 이렇게 열 항목으로 구분되고, 견혹의 88개번뇌와 합쳐 98개의 번뇌가 형성된다. 이 98개의 번뇌에 발소번뇌(抹消煩惱)로 불리는 10전(纏), 즉 무참(無慚: 수치심이 없는 마음)·무괴(無愧: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질(嫉: 시샘)·간(瞋: 인색함)·악작(惡作: 후회)·수면(睡眠: 졸음에 빠지는 정신작용)·도거(掉擧: 정신적으로 조급한 상태)·침(沈: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분(忿: 분노)·복(覆: 죄를 감추려는 마음)을 합쳐 108번뇌를 이루게 된다.

日 용곡대 불교학사사·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잘 알고 두루 알면 그 사람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

《이티붓타카(如是語經)》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알'과 '슬기'를 다르게 써왔다. 알은 '知'로 쓰고, 슬기는 '智'로 쓴다. 잠된 슬기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는 다른 차원임을 강조하려는 문맥에서이다. 슬기가 단순한 지식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맥락이 선에서 말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과 연결되면서, 마치 슬기는 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오해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슬기를 얻기 위해서는 알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렇게 알과 슬기는 서로 모순적인 자리에 놓여있는 것일까?

한자에서도 슬기를 의미하는 '智' 속에 이미 알을 의미하는 '知'가 들어와 있지 않나. 결코 '知' 없이는 '智'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은 보여 주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知'와 '智'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한 일은 적지 않은 해악을 남겼다. 주고 받았다. 선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러한 오해가 남기는 상처는 더욱 더 커졌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애당초 슬기는, 앞에서 출발한다는 전통이 뿌리깊다. 우리 불교에서 지혜로 번역되는 반야(prajña)라는 말도 그 출발은 동사 '알다'(jñā)에서 온 말이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지혜 역시 jñāna라고 말한다. 그 역시 '알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좋지 않은 의미, 즉 다만 분별적인 지식이라 할 때는 '블리'의 의미를 갖는 접두어 'vi'를 동사 어근 'jñāna' 앞에 붙여서 새로운 말을 만든다. 그것이 '식(識)'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知'와 '智'의 구분과는 달리, 인도문화권에서는 그 양자가 사실은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智'를 써야 할 자리에 '知'를 쓴다.

중국의 종밀(宗密, 780-841) 스님이 "지라는 이 한 글자가 모든 미묘함의 문(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중국적인 맥락에서의 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맥락에서의 지를 말한 것이다. '붓다(Buddha)'라는 명사를 낳게 된 동사 어근 'budh'에도, '알다(to know)'라는 뜻이 들어있다.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알이 없이는 슬기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것이다. 깨달음 역시 알아서 깨닫는 것이며, 깨달아서 아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의 이러한 평소 생각을 지지해 줄 것을 만나게 되었다. 《이티붓타카(如是語經)》에서이다. 부처님께서도 괴로움을 떠나는 길을 일러주시고 있었다. 애착심을 끊어버림으로써,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신다(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p.174).

그런데 애착심을 떠나고 끊어 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잘 알고 두루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에서 출발하여, 애착을 끊게 되며, 마침내



그림·박구원

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알은 단순히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아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배우는 알아야, 붓다나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서 아는 알아야 그 성질은 마찬가지다.

말씀을 문자화 하는 것이 곧 책이 아닌가. 그러나 설법을 듣는 것은 되고, 책을 읽는 것은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출발점에 알아야 하는 것이 놓여 있고, '읽기'를 통해서이든 '듣기'를 통해서이든 알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우리 마음에 알이 있을 때, 비로소 애착의 끊음 역시 가능해질 것이며, 마침내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밤이 길어진 가을이다. 책, 좀 읽어보면 어떨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설법·화술

###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대상】**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시간】**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특징】**

- 자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철희 박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인 우불 김철희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 수정기공

###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간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인사

### 세척력이 강력한 유황 한방비누, 활피모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박정아 의과학박사(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래교수)가 추천하는 전통방법으로 만든 유황특수 비누입니다.
- 특징 : 유황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폼크린징 대응, 건강피부 유지, 애완건 냄새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명리학 학인 모집**

**활인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